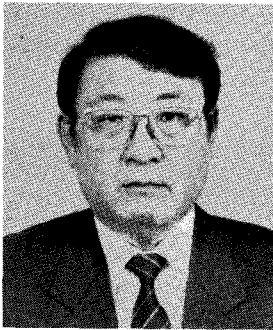


發明獎勵 事業의 어제와 오늘



金 常 鉉
〈本會 常勤理事〉

發明獎勵事業의 沿革

우리나라에 있어서 發明思想普及運動의 필요성이着想되기 시작한 것은 약 62年前인 1924~1928年代라고 볼 수 있다.

日本の侵略이 가져다준 怨恨이 날로 濃縮되어 1919年 3月 1日 마침내는 萬歲運動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日本人들의 政治彈壓은 더욱 가혹해졌다. 이때 뜻있는 人士들은 우리 民族의 살길을 科學知識의 啓蒙과 發明思想을 鼓吹시키는 일이라 믿었다.

民族의인 科學知識普及으로 命脈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産業發展에 寄與하기 위한 國民의

인 이 運動은 1928年 12月 7日 高麗發明協會의 發起總會를 갖기에 이르러 하나의 民族運動色彩을 나타내기도 했다.

當時 이 사실을 보도한 1928年 12月 9日 字東亞日報 기사를 참고자료로 옮겨보면 「현재 朝鮮人社會로서 發明人을 위하여 科學을 根據로 한 合理的 指導機關이 필요함으로 느낀 바 있어 얼마전부터 有志 몇 사람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오던 바 지난 7日 오후 7시에 京城 시내 慶雲洞 朝鮮物産獎勵會館 안에서 高麗發明協會發起會를 吳華英씨 사회로 의사를 進行한 바 금일 朝鮮人本意의 發明人을 위한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니 만큼 일반의 興味를 끌을 것은 물론이며 모든 發明人에 대한 基礎知識을 지도할만한 기관일 것이며 準備委員이 提請한 規約을 통과하고 밤 10시경에 無事閉會한 바 發起人은 吳華英씨 외에 20人이요, 創立總會準備委員으로 8人을 選舉하였더라.」이다.

그후 高麗發明協會가 정식으로 깃발을 올린 것은 1928年 12月 21日 朝鮮日報社 2層會議室에서 朝鮮物産獎勵會 明濟世씨 사회로 幕을 연 때부터이다.

갈수록 活氣를 띠우기 시작한 高麗發明協會는 大衆啓蒙事業을 시작, 1929年 1月 25日 天道教紀念館에서 宣傳大講演會를 열어 크게 관심을 끌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演題와 演士는 劉斗燦씨의 「發明의 偉力」과 李萬珪씨의 「發明의 曙光」이었다.

이協會는 發明思想普及運動으로 파고들면서 1930年 12月 21日 益善洞에 있는 회관에서 2周年 記念式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發明人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손대기로 했으나 그후 財政難으로 해서 스스로 그 존재가 사라졌다.

실상 高麗發明協會가 발족하기에 앞서 科學圖書, 雜誌出版과 特許手續指導相談 등을 목적으로 1924년 8월 朴吉龍, 尹城淳, 裴相彥, 朴璋烈, 崔穀昌, 許植煥씨들이 京城市內 長沙洞 83에 있는 東洋染織株式會社 안에서 發明學會를 發起하고, 그해 10月 1日 같은 장소에서 成漢錫씨 사회로 創立總會를 열어 初代理事長에 朴

吉龍(建築設計家), 專務理事에 金容瓏(窯業研究家), 劉銓(工學士)씨로 陣容을 갖추었다.

큰 뜻을 품었던 團體들은 그 당시의 社會的環境의 與件과 財政的 여건으로 해서 출발당초의 뜻을 마음껏 발휘하기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韓國人的 科學發展 내지는 産業技術의 底力을 이룩해야겠다는 큰 뜻의 發明學會는 그나마 주머니 돈을 털어 창립된지 얼마 못가고 9년이란 오랜동안 침묵에 잠겨 오던중 1933년 6月쯤에야 2代 理事長에 李仁(辯護士·辨理士)씨가 들어서서 부터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宋鎮雨, 金性洙, 方應謨, 呂運亨, 李鍾麟, 朴興植, 金知泰씨를 비롯해서 뜻있는 人士들이 支援하고 나섰다.

發明獎勵의 緊要性을 大衆啓蒙運動으로 作用시켜 보려는 事業은 發明學會가 중심을 이루는 朝鮮科學知識普及會(會長 尹致昊, 副會長 李仁, 顧問 金性洙, 呂運亨)가 制定한 「科學의 날」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날을 택한 것은 그 당시의 政治的인 여건이 韓國人 科學者나 發明人의 優越性을 내세울 수 없어 할 수 없이 「차알스 다아인」(1809~1882)이 사망한 4月 19日을 追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일본 總督府施政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일체의 集會도 容認하려 하지 않았으며 要視察人物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행동감시를 펴오던 시절이다.

모든 團體活動을 억제당하던 때인지라 부득이 非政治的 活動으로 피해나가는 수단은 自然物産獎勵運動, 農村振興運動, 迷信打破運動 등으로 번져갈 수밖에 탄 길은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發明獎勵事業도 社內的인 技術的 能力과 보다 넓고 깊은 組織的 活動을 꾀하려 했으나 財政的 발판의 幼弱性으로 해서 결국 會員들을 상대로 하는 特許手續의 代理業務에 주력하면서 1933年 6月 10日 4·6倍版 31面의 「科學朝鮮」이란 月刊雜誌를 처음 發刊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發明獎勵事業은 朝鮮總監府에서도 着想하고 있었다. 1924年 7月 10日 그들의 商工課가 발표한 發明獎勵事業의 構想은 發明學會活動을 가로 질러가는 구실을 했으며 本軌道를 摸索해 보았다고 하겠다.

發明人들을 援助하고 特許法과 學術的 解釋을 위주로 첫거름의 發明人이나 뜨내기 發明人들을 상대로 하는 동안 매일 5~6명, 적어도 3명이 저나름대로의 발명을 들고 오는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별 수 없이 發明協會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데 動機를 두고 있었다.

그렇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 相談을 해오는 發明人들의 80%는 일본 사람, 20%는 한국 사람인데다가 相談內容의 60%가 機械類, 40%가 化學的 製造方法이며, 대개는 한두차례 特許出願을 경험해 보았거나 拒絶당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면 군색한 發明人, 虛構性이 짙은 發明內容이多數였던 것이다.

이들을 行政機關에서 처리해 나가기에 불가능함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日本에서 터전을 닦아온 帝國發明의 表彰, 講演會, 展示會 開催등을 내걸고 규모있는 朝鮮發明 및 獎勵展示會와 兒童生徒創案品展示會를 열어 關心을 끌었다.

發明學會가 機關誌 「科學朝鮮」을 통해 發明意識을 啓蒙하면서 이끌어오던 特殊雜誌는 創刊 1年인 34年 6月 일단 休刊해야만 했고, 1935年 2月 姉妹機關인 朝鮮科學知識普及會(會長 元翊常)가 200여명의 會員組織을 맡아 8.1解放때까지 이어 오다가 繼承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1945年 8月 15日을 기해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發明獎勵事業界도 例外가 될 수는 없었다.

發明的인 思考에서 우리나라는 創意性의 昂揚과 發明의 獎勵보호에 뒤따라나서야 할 實用化(企業化)를 모색하며 科學技術振興을 목적으로 1947年 12月 27日 軍政廳商務部를 백 그라운드로 하는 官民共同體의 朝鮮發明獎勵會(理事長 吳植洙 商務部長) 創立을 보았다.

모처럼의 發明獎勵團體가 發足된지 1年이

못되어 6.25動亂을 피해 잠시釜山으로 옮겨서 再收拾의 과정을 겪으면서 1953年 4月 17~18日 發明品展示會와 優良商標展示會를 갖는 등熱意를 보이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協會는 전면적인改革을 보았지만 순수한發明人들 손으로 넘겨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자看板의名義마저 바꾸어야만 했다.

難航의 길은 다시 시발점을 이루어 1956年 9月 10日 臨時總會를 거쳐 韓國發明協會(會長 周利會)로 改稱, 약 9년동안 深刻한 混亂期를 겪어내려오다가 5.16과 더불어 商工部長官이 임명하는 5명의 收拾對策要員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再整備했지만 다시 波動, 1965년에는 또다시 大韓發明協會(會長 趙瓊奎)로 改稱이 뒤따라 波亂의 歷程을 밟아오다가 1974年 5月 15日 運營難으로 해서 解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韓發明協會의 機能은 1973年 10月 18日에 이미 發足한 韓國特許協會(會長 朱耀翰)에서 引受承繼하여 오다가 다시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促進하고 發明의 企業化를 助長하여 産業財産權에 관한 制度發展과 産學協同의 實效를 提高함으로써 産業界의 技術革新을 통한 國民經濟成長에 寄與하고자 1982年 2月 15日에 韓國發明特許協會(會長 具滋暲)로 改稱하여 本格的인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不安定の 連續線을 걸어온 發明獎勵事業은 1947年 朝鮮發明獎勵會 理事長 吳禎洙씨 이래 1956年 韓國發明協會會長 周利會, 1956年 金浩植, 1960年 周利會, 安亞州, 朴勝男, 1961年 李英雨, 1962年 朴基元, 1965年 大韓發明協會會長 趙瓊奎,

1967年 金泰煥, 1969年 申東寬, 1974年 韓國特許協會會長 朱耀翰, 1979年 具滋暲, 1982年 韓國發明特許協會會長 具滋暲, 1988年 金生基의 順으로 變遷을 거듭해 왔다.

發明의 重要性 浮刻

돌이켜 보건대 韓國特許協會가 創立된 初期에는 一般國民은 물론 企業을 맡고 있는 最高經營者들까지도 産業財産權에 대한 認識이 전혀없어 技術開發의 前後段階에서 必須的으로 活用되어야 할 産業財産權 問題를 到外視하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協會는 一般에게는 發明의 重要性을 浮刻시키는 弘報活動을 펴면서 研修講座·세미나·講演會 등을 통해 國內外的으로 惹起되었던 特許紛爭과 각 企業이 體驗한 成功 및 失敗事例들을 提示하는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開發의 成敗가 곧 우리나라의 運命에 直結되고 技術革新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強調한 全斗煥 大統領의 뜻을 받들어 韓國發明特許協會(會長 具滋暲, 常勤副會長 李泰燮)로 改稱, 우리나라의 發明風土를 振作시키고 發明의 企業化를 促進시키는데 寄與하고자 意慾的인 再出帆을 함으로써 「發明의 날」을 復活하고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 우리 商標展示會開催, 發明試作品製作支援, 常設發明品 展示館(發明獎勵館) 設置, 特許·實用新案 海外出願費支援 등 새로운 事業들을 推進하면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음은 産業財産權界로서는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KIPA通信 發刊案内	海外 特許情報 發刊案内
<p>本會는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지 KIPA 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p> <p>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 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p>	<p>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 特許情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p> <p>4·6倍版 200面 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 特許制度를 비롯하여 각종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p> <p>會員社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p>